

국립익산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

미륵사지 출토 치미 '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 개최
내년 3월 3일까지 제작기법·보존·수복 성과 소개

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율립)은 22일부터 2025년 3월 3일까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미륵사지 출토 치미 '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익산박물관 중장기 학술조사연구 '미륵사지 재발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미륵사지 출토 치미의 원형을 추적하기 위해 고고학적, 미술사적 검토와 과학적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치미 제작기법 및 보존·수복 성과를 소개한다.

예부터 치미는 건축물의 지붕 용마루 양끝을 장식하는 기와로, 치문, 취두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한반도에서는 4세기 중후반에 축조된 고구려 안악1호 무덤 벽화 등에서 초보적인 형태의 치

미가 확인되며, 이후 7세기에 조성된 미륵사지에도 다양한 형태와 문양을 담은 치미 편이 900여 점 이상 출토되어 학계의 관심을 받았다.

비록 완전한 모양이 아닌 편으로 전하지만, 백제 최대 대찰 미륵사의 옛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전시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타임캡슐과도 같은 치미의 제작, 폐기, 복원의 과정을 살펴본다.

이번 전시는 과학기술과 보존·수복을 통해 본 치미, 2부 형태를 빚고 문양을 담은 치미, 용마루 위 장식기와, 치미 등 모두 3부로 구성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미륵사지 출토 치미 '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 포스터

전주 공예문화 매력 널리 알린다

22~23일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공예체험 C-STREET' 야간 행사 개최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전통정원에서 특별한 공예 체험의 장이 열린다.

2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에 따르면 22~23일 양일간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에 발맞춰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재외동포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2024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공예체험 C-STREET' 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예주인과 연계해 전주가 수공예 거점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전통 공예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가죽, 종이, 라탄, 레진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공예 작품을 만들어 보며 전주의 독특한 공예문화를 손끝으로 느껴볼 수 있다.

또한, 지역 공예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부스를 운영, 공예품에 담긴 정성과 열정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야간 시

간대에 진행되는 만큼, 오목대 전통정원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속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공예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째 날인 22일에는 △가죽 목걸이 만들기 △종이 티코스터 제작 △평매듭 태슬 팔찌 만들기 △다종이 인형 만들기 등이 준비돼 있다. 이어 23일에는 △폐뚜껑 자개 레진 아트 △캐리커처 △나만의 다이어리 바인딩 △옛책 티코스터 제작 △라탄 도어 벨 만들기 등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무료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예산업팀(063-281-16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전주의 공예문화를 깊이 느끼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정읍시립박물관, 기획특별전 '선과 먹으로 전하는 마음'

내년 2월 2일까지 정읍 서화가 조병

정읍시립박물관이 서화실 신설을 기념하며 정읍 서화가들을 조명하는 기획특별전 '선과 먹으로 전하는 마음, 정읍 서화'를 22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정읍 출신이거나 정읍에서 활발히 활동한 서화가들의 작품이 공개된다. 주요 출품작으로는 난곡 송민고, 창암 이상만, 석지 채용신, 몽련 김진민, 동초 김석곤 등 정읍 서화사에 큰 족적을 남긴 예술가들이다.

박물관 1층 서화실에서는 선비들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사군자를 비롯해 자연과 역사 속에서 개인의 삶과 정신을 화폭에 담은 그림들이 전시된다. 특히 희귀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송민고의 '묵매도'와 채용신이 그린 10폭의 '영모도' 병풍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호랑이 그림의 명인 소제 이상길, 달마도대가 소공 이명우 등 다양한 서화 작품이 전시된다.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조선 후기 3대 명필로 손꼽히는 창암 이상만의 작품을 비롯해 몽련 김진민의 '난정서 10폭 글씨 병풍', 동초 김석곤의 병풍과 현관 작품이 공개된다. 이상만의 대표작인 '산풍수색과 유수체의 조형미를 보여주는 작품들도 함께 전시되며, 특히 영조가 정읍 사람 김도연에게 하사한 영조 어필과 무서서원 현관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품 감상 외에도 매화 그림과 눈 내리는 풍경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과 어린이를 위한 포토존, 컬러링 체험



공간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한다.

이화수 시장은 "정읍 서화가들이 선과 색을 통해 담고자 했던 소망과 감성을 이번 전시에서 느껴보시길 바라며, 서화실을 통해 다양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시립박물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립박물관으로 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콘서트 '다담'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예음관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을 개최한다.

10월 '다담'의 이야기 손님은 국립수목원장을 역임한 이유미 박사로, 이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국립수목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날 자연과 식물의 가치를 주제로 관객들에게 자연이 주는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유미 박사는 평생을 식물 보전 연구에 헌신, 저서로는 △광릉 숲에서 보내는 편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무 100가지가 있으며, 다양한 강연과 방송 활동을 통해 식물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전통 국악연주를 통해 관객들이 한국 음악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며, 진행은 전주MBC 목서운 아나운서의 진행하고, 공연 1시간 전부터 공연장 로비에서 계절에 맞는 차와 다과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세계한인무역협회,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1일 임실치즈역사문화관에서 (사)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박종범, 이하 월드옥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자치도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을 세계로 알리고, 해외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도내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북자치도 교육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한국 문화자원을 활용한 전북자치도 관광 활성화 추진 △재외동포의 역사·문화·관광을 위한 관광교류 방안 모색 △해외시장 동향 등이다.

박종범 회장은 "월드옥타가 보유한 세계 각

지의 한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매력을 알리고, 많은 이들이 전북자치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의 문화자원과 관광산업을 글로벌 무대에 널리 알리고,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월드옥타(World-OKTA)는 전 세계 70개국에 걸쳐 148개의 지회를 두고 7,000명의 정회원과 28,000여 명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한 글로벌 한인 경제 네트워크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관광마케팅팀(063-230-7480, 74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전주 스트리트 웨딩축제 대규모 이벤트 '100인의 결혼' 행사 진행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오는 26일 오후 5~7시까지 50쌍의 커플이 참여하는 '100인의 결혼'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0인의 결혼'은 전주 스트리트 웨딩축제의 대규모 이벤트 행사로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들이 웨딩 퍼레이드에 직접 나선다.

퍼레이드는 종남문 광장에서 미스터리 대저택까지 이어지며, 이날 50쌍의 커플은 각기 화려한 웨딩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고, 브라스 밴드의 생생한 음악에 맞춰 등장한다.

특히 이번 웨딩 퍼레이드는 전주에서 처음

시도되는 대규모 행사로 참여자들은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도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전주 웨딩거리가 특별한 웨딩 성지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거리 웨딩축제는 내달 23일까지 계속된다. 매주 토요일마다 릴레이 버스킹과, 시민참여 퍼포먼스 '함 사세요 가 거리를 들쭉이게 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기부자
지역단체/단체 제품 제공
기부
지자체
농업인
단체 제품 구입
농축산물 공급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고향사랑 기부제

- 기부액의 30% 상당 단체제품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시행: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정부 총리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농협은행·농협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불가)

정읍시지부 지부장 이재연
칠보농협 조합장 권순준
삼골농협 조합장 허수종

정읍농협 조합장 유남영
태인농협 조합장 한상곤
정읍원예농협 조합장 이대건

황토현농협 조합장 유형기
신태인농협 조합장 황휘종